

녹색채권 사후 보고서

1. 개요

본 보고서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부속서4. 사후보고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쌍용C&E(주)에서 발행한 제316-1회 공모사채(녹색채권)의 자금배분 및 환경영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최종 사후 보고서입니다.

구분	내용
발행기관	쌍용C&E(주)
보고대상 표준코드(ISIN)	KR6003411B90
보고범위	자금배분 및 환경영향 보고
보고서 공개일자	2022년 12월 27일
최종 자금배분보고서 외부검토 기관명	한국신용평가(주)

2. 녹색채권 발행 내역

구분	내용
종목명	쌍용C&E(주) 제316-1회 무보증사채
사채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발행일자	2021년 09월 16일
발행금액	300억원
만기일자	2024년 09월 13일
발행금리	2.238%

3. 녹색채권 발행 자금 사용 현황

쌍용C&E(주)는 ESG관리체계상 명시된 발행 자금 배분 대상을 준용하여, 순환연료 활용 설비 및 폐열발전 설비 설치 프로젝트 등에 2021년 9월 16일 발행한 녹색채권의 발행자금을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단위 : 억원)

종목명	총 발행금액	총 사용금액 (순환연료 활용 및 폐열발전 설비 설치공사)	비고
제316-1회 무보증사채	300	300	

4. 기대 효과

녹색채권 발행 자금을 활용한 투자를 통해서, 시멘트 소성로의 주연료로 전량 수입하여 사용 중인 유연탄 중, 연간 28천톤을 가연성 폐기물 즉, 합성수지로 대체 사용함으로써 천연자원 사용량을 감소시켜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량적으로는 미세먼지 전구물질로 알려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319톤/년 감소, 온실가스 배출량이 294톤-Co2eq/년 감소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폐열발전 설비 추가 구축을 통해 연간 발전량이 27,002 MWh 증가되므로, 온실가스 간접 배출량이 12,405톤-CO2eq/년 감소가 예상됩니다.

→ 온실가스 감축량 합계 : 총 12,699톤-CO2eq/년

※ 게시일 현재 발행자금이 전액 배분 완료됨에 따라 본건 안내문이 최종 게시이며, 향후 주요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공시 예정입니다.

ESG 금융상품 인증(Assessment) 평가

쌍용 C&E(주)
녹색채권 (Green Bond)

평가일 2022.12.27

평가담당자	발행 개요		녹색채권 평가 ¹ 결과	
	조병준 실장 ☎ 787-2227 Bj.cho @klsrating.com 박성근 선임연구원 ☎ 787-2386 Sungkeun.park @klsrating.com	발행인	쌍용 C&E(주)	최종 평가 GB1
	평가대상	제 316-1 회 공모사채	Part 2 평가 M1	
	평가종류	사후평가(정기평가)		
	발행금액	300 억원		
	발행일	2021 년 9 월 16 일		
	만기일	2024 년 9 월 13 일		

평가 의견

한국신용평가(주)는 당사의 ESG 금융 인증 평가방법론을 기준으로 쌍용 C&E(주)가 조달한 총 300억원의 제 316-1 회 공모사채(녹색채권)에 대하여 사후평가(정기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 Part 1(프로젝트 적격성, 예정 자금투입 비중 등) 등급을 'E1', Part 2(관리, 운영체제 및 투명성) 등급을 'M1', 최종 평가등급은 'GB1'으로 기존 등급(직전 평가일 2021.09.02)을 유지하였다. 또한, 쌍용 C&E(주)의 녹색채권 Framework(이하 '관리체계')가 대한민국 정부의 가이드라인 및 ICMA 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평가의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프로젝트가 적격 기준에 부합하며, 모든 조달자금을 적격 프로젝트에 배분
- 순환경제로의 이행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환경 개선 효과 기대
- 프로젝트 선정기준 마련, 내부 승인절차 등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내부 절차 완비
- ESG 채권 자금관리 내부정보시스템 활용, 미사용자금 운용 절차 마련 등 적절한 자금관리체계 구축
- 적시성과 충분성을 갖춘 사후보고 및 공시
- 적극적 사회공헌 활동 및 ESG 이슈 관련 대응 노력

¹ 녹색채권 평가: 회사가 녹색채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을 당사의 분류체계(Taxonomy)에 부합하는 적격 프로젝트에 총당하는 정도와 조달자금과 관련된 관리, 운영 및 투명성 확보의 정도를 평가한 것이다. 평가의 최종 등급은 5단계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부여되고, 인증평가의 대상이 채권(Bond)인 경우에는 상위부터 GB1, GB2, GB3, GB4, GB5의 부호로 표시된다.

쌍용 C&E(주)(이하 '동사')가 본 녹색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금액은 총 300 억원이며, 동사는 조달금액 전액을 순환자원 재활용 및 폐열회수발전(WHP) 설비 투자 프로젝트에 투입하였다. 당사 분류체계와 정부 가이드라인의 적격 프로젝트 범주에 포함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환경적 편익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녹색채권 조달자금이 적격 프로젝트에 투입됨에 따라 친환경 생산 공정 구축을 통한 순환경제로의 이행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당사는 동사가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내부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해당 프로세스를 위한 별도의 ESG Working Group 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사는 지속가능경영 핵심 이슈 도출을 위한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관부서 실무자로 구성된 ESG Working Group 은 동사 관리체계 (Framework)와 지속가능경영 핵심 이슈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평가 및 선정한다. ESG Working Group 의 검토 이후 ESG 경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ESG 채권 발행관련 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와 CEO 의 최종 승인절차가 이루어진다. 이에 당사는 동사의 관리체계(Framework)가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와 관련한 대한민국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ICMA 의 원칙에 '탁월'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당사는 동사가 ESG 채권 조달자금 관리를 위한 내부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내부정보시스템에는 ESG 채권 관련 세부사항과 자금투입 계획, 누적 투입자금 현황 등의 정보가 포함·관리되고, 미사용 발행자금은 동사의 자금지출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여 사용 및 관리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당사는 동사가 ESG 채권 조달자금과 미사용자금을 대한 적절한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사의 관리체계 (Framework)가 '자금관리'와 관련한 대한민국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ICMA 의 원칙에 '탁월'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당사는 동사가 ESG 채권 조달자금 전부를 프로젝트에 투입하기 전까지 매년 동사 웹사이트에 채권 관련 정보를 공시할 예정이었으며, 계획된 바에 따라 사후보고 및 공시가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해당 보고서에는 ESG 채권 개요를 비롯하여 조달자금의 투입 및 미사용 현황(Allocation Reporting), 자금투입에 따른 환경·사회적 영향(Impact Reporting)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사가 ESG 채권 조달금액을 투입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정량적 및 정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보고 및 공시를 실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사는 전반적으로 동사의 Reporting 관련 관리체계 (Framework)가 대한민국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ICMA 의 원칙에 '탁월'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평가일 기준 동사의 ESG 관련 이슈 진행 상황과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 ESG 관련 프로그램의 수행 의지 및 능력, 외부기관으로부터 공인된 ESG 활동 수준 등을 감안할 때, 동사 ESG 관련 이슈가 잠재적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판단되며, 당사는 동사의 ESG 관련 활동이 '매우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당사는 동사의 조달금액 투입 계획과 프로젝트 적격성, 관리·운영체제 및 투명성이 비교적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는 가운데, ESG 경영체계의 효과적 운영 및 점검을 담당하는 ESG 경영위원회의 역할 확대와 사회공헌 분야를 담당하는 사회공헌위원회 신설 등 동사가 전사적으로 높은 ESG 내재화 수준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동사를 ESG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라 평가한다.

본 평가에는 현행 KIS 'ESG 금융 인증'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였습니다. 당사의 평가방법론은 'www.kisrating.com / 리서치 / Special Report'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발행기업 개요

쌍용 C&E(주)(이하 '동사')는 업계 1 위의 생산능력과 선두권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시멘트 회사로, 2016 년 4 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가 채권단 보유 지분을 인수한 이후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2022 년 9 월 기준 한앤코시멘트홀딩스(유) 지분율 77.7%).

동사는 석회석을 채굴하는 신기광산부터 출하기지인 북평항까지 주요 생산라인에 컨베이어벨트를 구축하여 높은 물류효율성을 달성하고 있으며,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생산효율성과 안정적인 영업 실적 추이, 레미콘과 슬래그시멘트 및 슬래그파우더를 제조하는 종속회사 보유 등을 통하여 우수한 수준의 업계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동사 및 대한시멘트 출하량 합산시 약 23.7%(2018 년 기준)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시장지위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동사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은 A/안정적(한국신용평가(주), 2022 년 6 월 28 일 기준)이다.

인증 대상 ESG 금융상품 개요

구분	내용
금융상품명	제 316-1 회 공모사채(녹색채권)
발행금액	300 억원
발행일	2021 년 9 월 16 일
만기일	2024 년 9 월 13 일
금리	2.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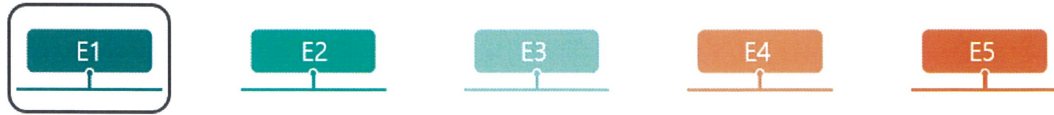
발행기업의 ESG 관련 지속가능 전략

동사는 기후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성장 가능기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ESG 경영 비전 『GREEN 2030』을 선포하였다. 동사 ESG 경영전략은 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환경부문의 경우 '2030 탈(脫)석탄' 전략하에 2030 년까지 유연탄 사용량 '제로(0)' 달성을 목표로 관련 설비 증설 및 인프라 구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해관계자와의 소통·협력'으로 대표되는 사회부문은 고객과 주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ESG 경영위원회 산하 사회공헌위원회 신설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동사의 의지가 피력되어 있다.

지배구조 부문에는 '투명경영과 주주권리 보호' 달성을 위한 전략이 수립되어 있으며, 이사회 감독기능 강화와 집행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집행임원제도 도입, 감사위원회 전원 사외이사 구성·운영 등 투명경영과 주주권리 보호, 이해관계자 소통을 위한 동사의 계획과 노력 등이 제시되어 있다.

Part 1 평가



당사는 동사의 '조달금액 투입 계획 및 프로젝트 적격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프로젝트의 적격성이 인정되며 본 채권 발행자금 중 적격 프로젝트에 투입된 자금의 비중이 90%를 초과하여 Part 1(프로젝트 적격성, 자금투입 비중 등) 등급은 'E1(탁월)'으로 유지하였다.

프로젝트 적격성 검토

당사는 본 Part 에서 당사의 ESG 금융 인증 평가방법론에 따라 동사의 녹색채권 조달자금이 환경(Green) 측면에서 개선 효과를 가져다주는 프로젝트(적격 프로젝트)에 투입되는지 확인한다. 조달자금이 투입된 프로젝트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 동사의 전문부서 또는 외부의 제 3 의 기관에 의해서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회피책이나 완화책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와의 정합성을 확인한다.

1. 조달자금 투입 내역

본 녹색채권과 관련한 동사 사후보고서에 따르면, 동사가 본 녹색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금액은 총 300 억원이며, 조달금액 전액이 순환경제 및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설비 투자에 투입되었다. 당사는 순환경제 및 에너지 효율 대상 프로젝트로 동사가 진행중인 강원도 동해시 소재 순환연료 활용 설비 및 폐열발전 설비 설치 공사를 선정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금투입을 완료하였다.

녹색채권 조달자금 투입 프로젝트

구분	프로젝트 카테고리	주요 내용
환경(Green)	순환경제 및 에너지 효율	- 순환연료 활용 설비 및 폐열발전 설비 설치

자료: 동사 제시

ESG 채권 조달자금 투입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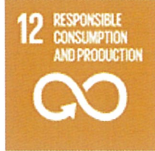
구분	프로젝트 카테고리	녹색채권 발행금액	녹색채권 조달자금 투입금액	비율
환경(Green)	순환경제 및 에너지 효율	300 억원	300 억원	100.0%
	합 계	300 억원	300 억원	100.0%

주: 비율은 본 녹색채권 발행금액 대비 프로젝트 투입금액 비율임.

2. 분류체계 및 SDGs Mapping

당사는 동사로부터 수령한 자료를 바탕으로 동사의 프로젝트가 당사 분류체계와 정부 가이드라인의 적격 프로젝트 범주에 포함되는지 검토하였으며, 동사 프로젝트가 당사 분류체계상 ‘환경오염 예방 및 통제’, ‘환경 효율 및 순환경제를 고려한 상품, 생산기술 및 공정’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UN 의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및 ICMA 의 SDGs Mapping 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동사 프로젝트가 각 SDGs 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였다.

환경(Green) 프로젝트별 분류체계 범주 및 SDGs Mapping 검토 결과

카테고리	KIS Taxonomy	정부 가이드라인	UN SDGs	
순환경제 및 에너지 효율	3. 환경오염 예방 및 통제 10. 환경 효율 및 순환경제를 고려한 상품, 생산기술 및 공정	3. 오염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사업 9. 환경 효율 및 순환경제를 고려한 상품, 생산 기술 및 공정에 관한 사업		

당사가 선정한 환경(Green) 프로젝트는 ICMA 의 SDGs Mapping 에 비추어 ‘목표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등에 부합하며, 관련 주요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Target 9.5.] 환경 친화적인 산업 활동과 기술 혁신을 통한 자원효율성 높은 산업화 추구

[Target 12.5.] 폐기물의 원천예방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발생 감소

3. 프로젝트의 환경 효과 및 사회적 편익에 대해서

당사 분류체계와 정부 가이드라인의 적격 프로젝트 범주에 포함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그 환경적 편익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본 녹색채권 조달자금이 동사 계획에 따라 적격 프로젝트에 투입됨에 따라 친환경 생산 공정 구축을 통한 순환경제로의 이행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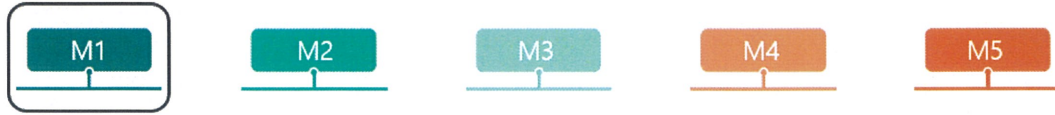
당사는 순환자원 재활용 설비와 폐열회수발전(WHR) 시설 확대를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 프로젝트를 통하여 산업 부산물 및 폐기물의 순환연료 전환, 폐열회수발전 전력의 공정 재투입 등 생산 공정 전(全) 단계에서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순환자원 재활용 설비 투자의 경우, 시설 구축 완료시 소성공정에 투입되는 유연탄 사용량 감소와 폐합성수지, 페타이어, 재생유, 폐목재 등을 활용한 순환자원 사용량 증대로 온실가스 및 질소산화물(NOx) 배출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폐합성수지의 매립이나 불완전 소각으로부터 파생되는 부차적 환경 피해의 예방 또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폐열회수발전(WHR) 시설은 소성로에서 발생한 열원을 회수하여 전력 생산에 활용하는 설비로, 발전량 감소에 따른 에너지 자원 보존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4. 프로젝트의 환경, 사회적 리스크에 대해서

대상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설비 공사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의 발생이 예상되나, 통상적인 수준의 환경영향으로 판단되며, 동사 환경영향 관리체계상 프로젝트 진행으로 인해 파생되는 리스크에 대하여 적절한 환경영향 저감 방안이 이행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프로젝트 관련 환경 및 사회에 대한 부정적 효과 발생 개연성은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Part 2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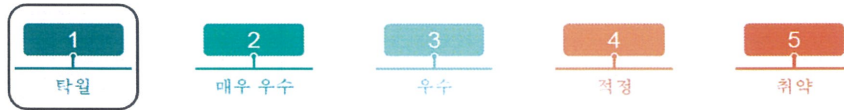


본 Part에서는 발행기업의 경영진이 ESG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내부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자금관리, 사후보고 등 ESG 채권 관리체계(Framework)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경영상의 목표 설정에 지속가능성 과제를 포함하였는지 등을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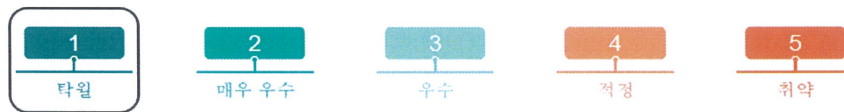
당사는 이하에 상술하는 평가 근거를 바탕으로, 본 녹색채권 조달자금과 관련한 동사의 관리, 운영체제가 정비되어 있고, 사후보고 및 공시 투명성도 높으며, 조달자금의 적격 프로젝트 투입 계획에 따라 실행될 것으로 판단하여 Part 2(관리, 운영체제 및 투명성) 등급은 'M1(탁월)'으로 부여하였다. 즉, 당사는 동사의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 자금관리, 사후보고 및 공시 등 녹색채권 관리체계 및 운영이 대한민국 정부의 가이드라인 및 ICMA의 원칙에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Sector 별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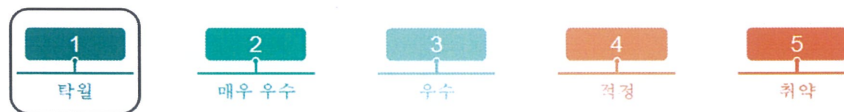
Sector1.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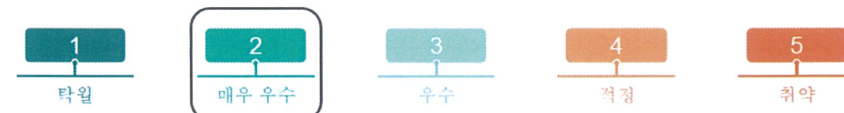
Sector2. 자금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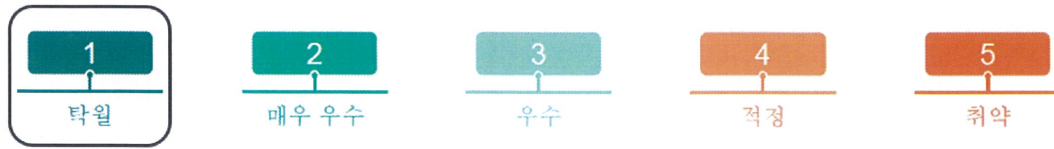
Sector3. 사후보고 및 공시(Reporting)



Sector4. 발행기업의 ESG 관련 활동



Sector 1.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



본 Sector에서는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과 관련된 동사의 내부 절차가 구비되어 있는지, 구비된 절차에 따라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한다.

선정기준

동사는 ESG 프로젝트 선정 시 ICMA의 Green Bond Principles와 대한민국 정부(환경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적격성을 감안하고 있다. 동사는 ESG 관련 업무를 위한 별도 전담 조직인 ESG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선정기준 제정 시 내부 전문부서 및 외부기관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프로젝트 선정시 자금 투입에 따른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는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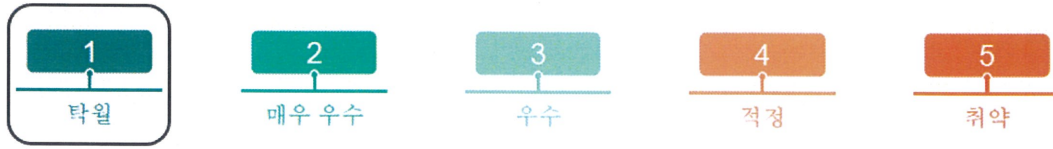
프로세스

동사는 프로젝트의 선정과 관련하여 이하의 프로세스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 1) 중대성 평가를 통한 지속가능경영 핵심이슈 도출
- 2) 개별 사업부 단위 ESG 프로젝트 선정 및 자체 점검
- 3) 발행 주관부서와 ESG 채권 Working Group의 프로젝트 적격성 검증 및 확인
- 4) ESG 경영위원회 보고 이후 이사회 결의 및 CEO의 최종 승인

당사는 동사가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내부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해당 프로세스를 위한 별도의 ESG Working Group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사는 지속가능경영 핵심 이슈 도출을 위한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관부서 실무자로 구성된 ESG Working Group은 동사 관리체계(Framework)와 지속가능경영 핵심 이슈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평가 및 선정한다. ESG Working Group의 검토 이후 ESG경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ESG채권 발행관련 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와 CEO의 최종 승인절차가 이루어진다. 이에 당사는 동사의 관리체계(Framework)가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와 관련한 대한민국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ICMA의 원칙에 '탁월'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Sector 2. 자금관리



본 Sector에서는 녹색채권 조달자금이 계획에 따라 적격 프로젝트에 투입되며, 투입 현황을 용이하게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내부 체제가 구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미사용 조달자금의 관리, 운용 방법에 대해서도 중요시하고 있다.

본 녹색채권 발행자금은 적격 프로젝트 카테고리상 ‘순환경제 및 에너지효율’ 부문에 투입되었으며, 평가일 현재 미사용자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사 자금팀은 내부정보시스템(ERP 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관련 투입 자금을 관리하고, 자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당사는 동사가 발행자금 관리를 위하여 내부정보시스템(ERP 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내부정보시스템 하 ESG 채권별 자금 정보와 미사용자금의 추적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내부정보시스템에는 ESG 채권 관련 세부사항과 자금투입 계획, 누적 투입자금 현황 등의 정보가 포함·관리되며, 미사용 발행자금은 동사의 자금지출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여 사용 및 관리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당사는 ESG 채권 조달자금을 포함한 자금관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내부통제에 관한 외부(회계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 독립적인 검토 및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당사는 동사가 ESG채권 조달자금 관리를 위한 내부정보시스템과 미사용자금에 대한 적절한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있어 동사의 관리체계(Framework)가 ‘자금관리’와 관련한 대한민국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ICMA의 원칙에 ‘탁월’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Sector 3. 사후보고 및 공시(Reporting)



본 Sector에서는 동사의 사후보고 및 공시체계가 구체적이고 효율성 있는 형태로 계획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당사는 동사가 ESG 채권 조달자금 투입 예정 금액 전부를 프로젝트에 투입하기 전까지 매년 동사 웹사이트에 채권 관련 정보를 공시할 예정이었으며, 계획된 바에 따라 사후보고 및 공시가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해당 보고서에는 ESG 채권 개요를 비롯하여 조달자금의 투입 및 미사용 현황(Allocation Reporting), 자금투입에 따른 환경·사회적 영향(Impact Reporting)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당사는 동사가 Allocation Reporting 과 Impact Reporting 을 통한 정기 공시 외 ESG 채권 관련 주요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 내용의 적시 공시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System)를 마련하고 있으며, 공시 항목·내용 등과 관련하여 자금팀 및 CFO(공시책임자)의 결재를 득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당사는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SG 채권 조달금액을 투입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정량적 및 정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보고 및 공시를 실행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당사는 전반적으로 동사의 Reporting 관련 관리체계(Framework)가 대한민국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ICMA의 원칙에 '탁월'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Sector 4. 발행기업의 ESG 관련 활동



본 Sector에서는 발행기업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과거 발행기업과 관련된 ESG 이슈를 파악하고, 동일 이슈의 발생빈도,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영향 그리고 해당 이슈에 대한 발행기업의 대응을 통해 발행기업의 ESG 이슈가 잠재적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확인한다.

본 Sector 평가를 위해 동사로부터 제시받은 자료와 언론보도를 참고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공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투자나 관련 활동의 발생빈도,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영향과 이슈 발생 시 동사의 대응 방법을 검토하였다.

동사는 업계 최초로 ESG 경영을 선언하는 등 전사적으로 지속가능경영 이념을 공유하고 있으며,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하여 ESG 경영체계의 효과적인 운영 및 경영이념 내재화를 위한 전략 수립과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동사는 2030년까지 탈(脫)석탄과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하는 『GREEN 2030』 비전을 선포하였으며, 2020년~2021년 유연탄을 대체하는 순환자원 설비에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폐열발전 설비를 확충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동사는 한국표준협회가 실시한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지수(KSI)’ 대회에서 2013년~2022년 연속 시멘트 분야 1위 기업에 선정되는 등 사회책임 활동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2020년에는 환경문제 해결 및 순환자원 재활용 부문에서의 선도적인 역할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 모색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본 녹색채권 발행 이후 동사 사업장 내 중대재해처벌법 및 지정폐기물 처리 관련 이슈가 발생하였으며, 2022년 7월 중대재해 발생을 비롯한 대내외 사업환경 위기 극복을 위하여 전사 차원의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였다. 동사는 비상경영체제 하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정폐기물 처리 이슈의 경우 유관 기관과의 확인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평가일 기준 동사의 ESG 관련 이슈 진행 상황과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 ESG 관련 프로그램의 수행 의지 및 능력, 외부기관으로부터 공인된 ESG 활동 수준 등을 감안할 때, 동사 ESG 관련 이슈가 잠재적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판단되며, 동사의 ESG 관련 활동은 ‘매우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참고] 쌍용 C&E(주)의 주요 사회공헌 활동

동사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지속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이 필요한 지역 이슈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의 참여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쌍용 C&E(주) 사회공헌 활동 영역 및 주요 내용

구분	활동 영역	주요 활동 내용
건강한 지역사회 지원	의료 지원	-공장 인근 지역 주민 대상 정기적 의료지원 활동 시행 -한국유방검진재단과 지역주민센터에서 유방암 검진 실시 등
	농촌 일손 돕기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 -지역 농산물 구매 등 농가 경제 회복에 일조
활기찬 상생협력 활동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독거노인 및 결손가장 아동을 위한 봉사활동 -일일카페 수익금을 통한 생필품 지원 -공장 동호회 중심으로 도배, 전기시설 보수 등 주거안전 봉사
	지역경제와 문화 활성화	-지역 주민 대상 문화교실 운영 및 유명인사 초청 강연 -청소년 대상 문화활동(뜻살대회, 사생대회, 청소년 가요제 등)
지역인재 육성	지역인재 장학사업	-쌍용동해 장학재단 및 쌍용영월 장학재단 설립, 15 억원 이상 지원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	녹색성장대 조성사업	-‘전천환경정화의날’ 행사 등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 참여 -폐광산 부지 환경 복원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적극 협조 -공장 인근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보호 활동
재난 극복 지원	코로나 19 대응	-위생 구호물품 및 생필품 지원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활동
	자연재해 대응	-산불, 태풍 등에 대비한 위기대응훈련 전개 -혈액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헌혈행사 참여

최종 평가

한국신용평가(주)는 당사의 ESG 금융 인증 평가방법론에 따라 동사의 녹색채권에 대한 인증 평가 결과, Part 1(프로젝트 적격성, 자금투입 비중 등) 등급을 'E1', Part 2(관리, 운영체제 및 투명성) 등급을 'M1'으로 부여하였으며, 최종 등급결정 Matrix 에 따라 최종 인증평가 등급을 'GB1'으로 부여하였다. 또한, 동사의 녹색채권 Framework(관리체계)가 대한민국 정부의 가이드라인 및 ICMA 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KIS 녹색채권 인증평가 등급 매트릭스

구분		Part 2				
		M1	M2	M3	M4	M5
Part 1	E1	GB 1	GB 2	GB 3	GB 4	GB 5
	E2	GB 2	GB 2	GB 3	GB 4	GB 5
	E3	GB 3	GB 3	GB 3	GB 4	GB 5
	E4	GB 4	GB 4	GB 4	GB 5	등급 외
	E5	GB 5	GB 5	GB 5	등급 외	등급 외

당사는 동사의 조달금액 투입 계획과 프로젝트 적격성, 관리·운영체제 및 투명성이 비교적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는 가운데, ESG 경영체계의 효과적 운영 및 점검을 담당하는 ESG 경영위원회의 역할 확대와 사회공헌 분야를 담당하는 사회공헌위원회 신설 등 동사가 전사적으로 높은 ESG 내재화 수준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동사를 ESG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라 평가한다.

[별첨 1] 본 건 ESG 채권 평가에 관한 중요한 설명

1. 평가의 전제, 의의, 한계

당사가 부여한 ESG 채권 평가등급은 평가 대상인 ESG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이 당사가 정의하는 그린 프로젝트 및 소셜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정도와 해당 ESG 채권의 자금용도 등과 관련하여 관리, 운영 및 투명성 확보의 정도에 관한 당사의 현 시점에서의 종합적인 의견의 표명이며, 해당 ESG 채권으로 조달되는 자금의 투입과 자금용도 등과 관련된 관리, 운영 및 투명성 확보의 정도를 완전하게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의 ESG 채권 평가는 채권의 발행계획 시점 또는 발행 시점에서의 자금의 총당 등의 계획 또는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며, 미래의 실제 자금투입 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사의 ESG 채권 평가는 해당채권이 환경, 사회적 과제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환경, 사회적과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ESG 채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이 환경, 사회적 과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당사는 발행기업 또는 발행기업이 의뢰하는 제 3 자에 의해 정량적, 정성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확인하나, 이를 직접 측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론

본 평가는 실시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론은 당사 홈페이지(www.kisrating.com)의 'ESG 금융 인증 평가방법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3. 신용평가업무와의 관계

당사의 ESG 채권 인증평가는 당사의 부수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며, 신용평가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4. 신용평가 등급과의 관계

본 건 평가는 신용평가 등급과는 전혀 다르며, 또한 별도의 정해진 방법론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본 평가의 결과가 신용평가와 관련성이 있거나 동등한 결과를 보장 또는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5. 당사 ESG 채권 평가상의 제 3 자성

본 평가 대상이 되는 채권의 발행기업과 당사의 사이에 이익 상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본관계, 인적관계 등은 전혀 없습니다.

[별첨 2] KIS의 ESG 금융 평가등급 체계

당사는 ESG 채권 발행기업으로부터 제출 받은 관련 자료와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 관련 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당사의 평가방법론에 준거하여 분석한 후, 각 개별 ESG 채권에 대한 평가 결과를 상대적인 등급(ESG1~ESG5) 형태로 부여한다. ESG 채권 발행 전 평가에서는 자금용도, 조달자금에 대한 운영, 관리, 공시 등 발행기업의 채권 발행계획과 ESG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하며, ESG 채권 발행 후 평가에서는 실제 이행한 실적이 당초의 계획과 부합하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따라서, 본 평가의 결과인 등급은 환경이나 사회적으로 효과가 있는 적정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하고 이를 잘 이행하는지에 대한 검증한 결과이며, 이 프로젝트의 환경 및 사회적인 영향이나 개선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등급 및 정의

등급	정의
ESG1	ESG 채권의 거의 모든 자금을 적격 프로젝트에 투입하며, 발행기업이 운영 및 관리체계, 공시와 관련하여 탁월(Excellent)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음.
ESG2	ESG 채권의 대부분의 자금을 적격 프로젝트에 투입하며, 발행기업이 운영 및 관리체계, 공시와 관련하여 매우 우수(Very Good)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음.
ESG3	ESG 채권의 50% 이상을 적격 프로젝트에 투입하며, 발행기업이 운영 및 관리체계, 공시와 관련하여 우수(Good)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음.
ESG4	ESG 채권의 50% 미만을 적격 프로젝트에 투입하며, 발행기업이 운영 및 관리체계, 공시와 관련하여 적정(Fair)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음.
ESG5	ESG 채권의 매우 적은 금액을 적격 프로젝트에 투입하며, 발행기업이 운영 및 관리체계, 공시와 관련하여 취약(Poor)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음.

주) 등급부호는 평가 대상 금융상품에 따라 다르게 표시한다. 즉, 채권은 GB1~GB5(환경), SB1~SB5(사회), STB1~STB5(지속가능), 대출은 GL1~GL5(환경), SL1~SL5(사회), STL1~STL5(지속가능), 펀드는 GF1~GF5(환경), SF1~SF5(사회), STF1~STF5(지속가능)로 표시한다.

최종 등급결정 Matrix

		2 단계				
		M1	M2	M3	M4	M5
1 단계	E1	ESG 1	ESG 2(1)	ESG 3(2)	ESG 4(3)	ESG 5(4)
	E2	ESG 2(1)	ESG 2	ESG 3	ESG 4	ESG 5
	E3	ESG 3(2)	ESG 3	ESG 3(4)	ESG 4(5)	ESG 5
	E4	ESG 4(3)	ESG 4	ESG 4(5)	ESG 5	등급 외
	E5	ESG 5(4)	ESG 5	ESG 5	등급 외	등급 외

유의 사항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당사’)가 공시하는 ESG등급 등급은 해당 금융의 ESG 인증에 대한 당사의 현재 견해를 뜻하며, 당사가 발표하는 평가의견 등 리서치 자료(간행물)는 발행사의 장래 계획 준수여부에 대한 당사의 현재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평가등급과 당사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견해는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대한 서술이 아닙니다. 또한 간행물에는 계량모델에 근거한 위험의 추정치와 관련 의견 또는 키스채권평가주식회사나 Vigeo Eiris에서 발행한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는 당사가 발행기업 및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것입니다. 단, 해당 정보에는 인위적, 기계적, 또한 그 외의 사유에 의해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이든 상관없이 해당 정보의 정확성, 결과, 적확성, 적시성, 완전성, 시장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해서, 일체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당사는 해당 정보의 오류, 위조, 또는 해당 정보를 사용한 결과에 대해서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당 정보의 모든 사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기회 손실, 금전적 손실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특별 손해, 간접 손해, 부수적 손해, 파생적 손해에 대해서,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무과실책임, 기타 어떠한 책임원인이든, 그리고 해당 손해가 예견 가능한 예견 불가능하든 상관없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사의 ESG채권 평가는 평가 대상인 ESG채권과 관련있는 각종 리스크(신용리스크, 가격변동리스크, 시장유동성리스크 등)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당사의 ESG채권 평가는 당사의 현시점에서의 종합적인 의견 표명이며, 사실의 표명이 아니며, 리스크의 판단이나 개별 채권, 기업어음(CP) 등의 구입, 매각, 보유의 의사결정에 관해서 어떤 추천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 ESG채권 평가는 정보의 변경, 정보의 부족, 기타 사유에 의해 변경, 중단, 또한 철회될 수 있습니다. 당사 ESG채권 평가의 데이터를 포함해서, 본 문서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 ESG채권 평가의 데이터를 포함해, 본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이든 상관없이 무단 복제, 번역, 개정 등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평가등급 및 간행물은 투자자문이나 금융자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조언을 제공하지도 않으며, 특정 증권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평가등급이나 간행물은 해당 정보의 사용자나 그 관계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투자결정에 있어서 어떤 증권을 매매하거나 보유하라는 권고 또는 권유나 사실의 서술이 아니라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입각한 당사의 의견으로서만 해석되고 또 해석되어야만 하며, 특정 투자자를 위하여 투자의 적격성에 대해 의견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는 각 투자자가 매수, 매도 또는 보유를 고려중인 증권 각각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자체적으로 연구, 평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러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평가등급을 공시하고 간행물을 발표합니다.

당사의 평가등급과 간행물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당사의 평가등급과 간행물을 이용하여 투자사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무 전문가 혹은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발행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을 수령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발행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료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발행사/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관이 아니므로 평가와 간행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발행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평가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에 있어서 인간 또는 기계에 의한,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실수의 가능성 때문에 해당 정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데 대하여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어떠한 증명이나 서명, 보증 또는 단언을 할 수 없으며,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정보들은 평가등급 부여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고 발행사/대상 유가증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따라서 당해 평가등급이나 기타 의견 또는 정보에 관하여 그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상업성 또는 특정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당사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보증하거나 확약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사 및 그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선서 및 공급자는 여기 포함된 정보, 동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불가능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간접, 특별, 결과적 또는 부수적 손해(현재 혹은 장래의 손실 당사가 부여한 특정 평가등급의 대상이 아닌 관련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사전에 그 같은 손실 또는 손해 가능성에 대해 고지 받았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 또는 단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사 및 그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선서 및 공급자는 자신들의 과실(단, 고의 또는 기타 법률상 배제될 수 없는 종류의 책임은 제외함) 또는 자신들의 통제 범위 내에 또는 밖에 있는 사유 등에 의하여, 여기 포함된 정보, 동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불가능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어느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발생한 어떠한 직접 손실이나 손해 또는 보상으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정보는 저작권법 등 법의 보호를 받으며,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누구도, 이 정보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어떤 형태나 방식 또는 수단으로든, 복제 또는 재생산, 배포장, 전송, 전달, 유포, 재배포 또는 재판매,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장할 수 없습니다.